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6)단산·산방산
신비감에 싸인 용암원정구 장관

입력 : 2004. 04.23. 00:00:00



△단산

3월 20일 제주에는 단비가 내렸다. 탐사단은 비 날씨로 한라대맥 종주탐사를 잠시 미루고 안덕으로 향했다. 단산과 산방산을 오르기 위함이다.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와 안덕면 사계리의 경계에 걸쳐져 있는 단산은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최고의 연륜에 속하는 오름으로 알려져 있다. 바위가 툭툭 튀어져 나와 통통하고 반듯한 여느 오름과는 외형부터가 판판이다.

그 형태가 거대한 박쥐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바꿈지오름(단산)'이라 한다. 옛날 산야가 물에 잠겼을 때 이 오름이 바꿈지(바구니)만큼 밖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에서 오름지명의 유래를 찾기도 한다. '오름나그네' 김종철 선생은 여느 오름과는 전혀 판판인 이 오름을 가리켜 '오름나라의 이단아'라 불렀다.

탐사단은 인성리 감자밭을 지나 도로로 관통된 서쪽 능선을 따라 단산으로 향했다. 길목에 녹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세월과 비바람에 마모됐지만 '산림육성, 애림녹화' 라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기념비는 1963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 때에 해송이 조림됐다. 단산에는 2년전 불이나 아직도 검게 탄 상흔을 확인할 수 있는데, 40여년 전 심어진 해송 군락이 단산의 주요 식생을 이루고 있다.

단산 남쪽에는 유형문화재 4호인 대정향교가 있다. 추사적거지와는 불과 10리 거리다. 이곳에서도 추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향교 밖 서녘에는 기슭 바위의 틈에서 흘러 나오는 샘, '석천(石泉)'이라고 불리는 속칭 '새미물'이 있다. 옛날 대정현 성 안의 물이 말랐을 때에는 이 샘물을 길어다 썼다고 한다.

바위봉우리가 중첩된 북사면은 한라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수직의 깎아지른 벼랑을 이루고 있으며, 남사면은 소나무와 보리수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다. 이 산은 크게 세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봉우리가 가장 높아 주봉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향교 뒤편 서쪽 끝에서 정상을 거쳐 동쪽 기슭까지의 등줄기의 길이가 약 2km로, 산악인들은 이 구간을 암릉루트로 이용한다. 북쪽과 동쪽은 급경사의 칼날 능선이다. 오름이라고는 하나

분화구는 보이지 않는다.

주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일제가 구축해 놓은 진지동굴에 머물렀다. 서북쪽 퇴적층을 뚫은 진지굴로, 굴은 서쪽을 관통하고 있다.

△산방산

단산 서쪽 1km 지점에는 산방산이 있다. 제주도의 산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경치가 빼어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서린 곳이다.

산방산을 오르는 가장 큰 기쁨은 동쪽 서귀포에서 서쪽 모슬포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선대(仙臺)에 머무르는 것이다. 신선이 놀았다는 곳이다. 산방산 이마부분에 있는 이 선대에 앉으면 사계 화순 마을은 물론 푸른 바다 한가운데 있는 형제섬과 송악산 건너편에 가파도와 마라도 등이 발아래 펼쳐져 가히 '천하제일경'이다. 이 때문에 선인들은 산방산을 '영주십경'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산방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진지굴이 있다. 그것도 산방산을 관통하는 굴이다. 탐사팀은 북쪽사면으로 산방산을 오르다 7부능선 쫘(해발 270m)에서 좌측 좁은 길을 따라 1백m쯤에 이르러 '뚫린굴' 입구를 확인했다. 일제가 바위를 뚫어 구축한 진지동굴이다. 서북방면에서 동쪽 방향으로 파놓은 이 굴은 산방산 허리부분 약 30m를 앞뒤로 관통하고 있다.

동굴규모는 너비 1.6m, 높이가 1.8m로 사람의 이동이 용이할 정도이며, 동굴 중간에 2~3m 크기의 작은 방들이 만들어져 있다.

산방산은 희귀식물 군락지로도 유명하다. 암벽식물지대는 천연기념물 제376호(1986. 2. 8)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천연식생을 위협하는 요인도 적지않다.

그 중 하나가 대나무 군락이다. 대나무 군락은 북서 사면 하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전 재배하던 대나무들이 방치됐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왕성한 번식력과 주변 식생을 장악하는 힘에 의해 종 다양성을 단순화시키고 있어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월에는 산방산에 큰 불이 나 자연유산이 훼손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고의 경관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자체로 관리능력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제주도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크게 구긴 사고였다. 그러나 산방산 산불을 계기로 진화용 헬기가 배치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산방산·한라산 정상엔 조면암

제주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오름들은 송이 또는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산방산은 한

라산의 정상부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과 유사한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서부 해안지역에서 매우 높고 큰 산체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현상에 대한 기이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화산암의 분류는 암석의 화학성분을 이용하는데, 특히 규산(SiO_2) 성분의 함유비율을 이용한다. 제주도 해안지역에 가장 흔한 현무암은 규산이 48~52% 함유된 암석이다. 규산이 52~63% 함유된 암석은 안산암으로, 63~68% 함유된 경우는 조면암으로, 68~77% 함유된 암석은 유문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화산암은 조성 광물이 서로 다르고 또한 용암의 유동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규산의 함량이 적은 현무암은 암색이 짙고 감람석, 휘석 및 사장석 광물로 주로 구성되며, 분출당시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점성이 낮아서 용암이 얇고 멀리까지 흘러 분포하게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의 평야지에 분포하는 암석은 대부분 이러한 현무암에 해당한다. 반면, 규산의 함량이 많은 조면암은 밝은 색을 나타내고 휘석, 각섬석, 사장석, 정장석 및 석영 광물로 구성되며, 분출당시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점성이 높아서 화구 근처에서 두껍고 둥근 산방산과 같은 용암원정구(lava dome) 형태를 만든다.

제주도의 조면암은 한라산 정상부 일대와 영실, 문섬, 쇄섬, 산방산 및 돈두악과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주로 독립된 소규모 분포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전에 제주도의 지질을 연구하였던 학자들 중에는 조면암의 분포에 따라 문섬, 쇄섬, 산방산 및 돈두악을 연결하는 화산구조선을 가설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섬, 쇄섬 및 산방산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에 대한 지질연대 측정결과는 이들이 70~90만년 전에 형성된 암석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전문가리포트]산방산 전체 보호지역 지정필요

산방산은 식물의 보고인 제주도에서도 더욱 특이한 지역이다. 높은 오름이 드문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해발 약 400m의 표고를 가지면서 일부 아주 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초원지대와 관목림대, 해송군락, 다양한 상록수림과 암벽식물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장소이다.

산방산 북사면과 서사면 하부 지역은 방목과 간섭으로 억새초원이 형성된 지역이 보리수나무, 상산, 보리장나무 등 관목으로 천이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동사면과 남사면에는 30~40년생으로 추정되는 해송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방산 중턱까지 관목이나 해송군락이 분포하는 것은 산방산이 과거 방목지, 땃감채취 등의 행위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식물 분포의 모습이다.

북서사면 5부 능선 이상과 산 정상은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출현하면서 울창한 상록수림을 이루는데 주요 구성수종은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감탕나무 등이 분포하고 구실잣밤나무가 교목층에서 우점종이 되며 중층은 동백나무가 우점종을 이룬다.

이 지역에도 교목을 이루는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면 대부분 두가닥이나 세가닥으로 분지되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 나무가 벌채된 후 맹아로 갱신되어 자란 것을 의미한다. 실제 주변부락의 주민들에게 청문을 하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산방산 정상까지 나무가 많이 벌채되어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되어 정상에서 주변이 흰히 보였다고 한다. 즉 산방산에 지금처럼 울창한 상록수림이 형성된 것은 약 40년 전부터 산림보호가 이루어진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방산은 암벽지역이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암벽식물이 보호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인 솔잎난과 지네발난 같은 희귀한 식물이 분포하여 더욱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추후 산방산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할 부분이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 / 식생분야)>

[사진설명]단산에서 바라본 산방산 전경. 해안 가까이 비고가 높은 용암원정구로 단숨에 그 신비한 위용에 빠져들게 한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